

'익산형 방역' 도내 최고

신속한 역학조사, 지난달 18일 이후 검사건수 7000여건 자가격리자 1대 1 밀착 관리, 지역사회 확산 방지 효과

엄격한 기준으로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익산형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는 익산시의 정밀방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부터 자가격리자 관리까지 투트랙으로 이뤄지고 있는 익산형 방역 시스템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전 직원들은 다시 주말을 반납한 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3차 유행으로 지난월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지역에 발생한 확진자 수는 98명. 지난 3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개월 동안 20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증가

세이다. 당달이 역학조사 건수도 늘었다. 보건소 직원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 발생 시점부터 동선 조사를 시작으로 잠복기인 최대 14일까지 GIS와 카이온내역, DJR 기록을 토대로 감염경로를 파악한다.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나오면서 경로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확진자 동선에서 CCTV와 방범록, 탐문 등을 토대로 가족, 직장동료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내 밀접접촉자를 분류하는 과정을 24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는 일반 직원들까지 투입돼 하루 최대 14명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숨겨진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일부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의 비협조이다.

자가격리 처음 통보를 받은 시민들의 대부분은 순순히 수긍하지 않아 이

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데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시의 꼼꼼한 초기 대응과 역학조사 과정을 증명하듯 지난달 18일 이후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7,000여건을 돌파했으며 자가격리자가 최대 80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다.

시는 자가격리자가 확정되면 앱을 통해 1대 1 밀착관리에 돌입한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315명을 투입했다.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까지 나서 틈틈이 자가격리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571명으로 전담 공무원은 매일 하루 2회 전화, 수시 현장 점검 횡수를 늘리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달 28일에는 정현을 시장이 직접 나서 자가격리자에게 전화하며 관리 현황을 살펴 지도 했다.

자가격리자 분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방역망을 구축해온 결과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20% 가까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 접촉을 최소화시켜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 선출

정현을 익산시장이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3차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1대 회장에 선출됐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익산시가 국내 모든 세계유산에 대한 위상 강화와 세계유산 도시들의 우호 증진 등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익산 세계유산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 시장은 경주 국제문화유산산업과 함께 열린 올해 정기회의에서 22개 세계유산 회원도시 만장일치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에 선출됐다. 선출에 따라 1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문준희 함천군수가 부회장을 맡게 됐다. 그동안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9~10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부회장으로서 2년간 협의회를 이끌었으며 회원 도시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는데 공헌했다.

또한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정 시장은 회원도시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들을 이끌게 된 정 시장은 익산 세계유산의 명성을 더욱 드높일 기회로 보고, 국내 세계유산의 세계화를 이끄는 등 회원 도시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들의 현안을 꼼꼼히 살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 위상 강화와 우호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익산 세계유산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22개 시·군·구가 세계유산의 공동 현안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창립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서동콜, 승객용 앱 '서동T' 출시

익산시 브랜드 콜택시인 서동콜이 승객용 앱인 '서동T'를 자체 출시해 화제다.

9일 시에 따르면 서동T는 승객이 호출했을 경우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찾아 승객에게 바로 배차를 내리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동T'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택시 호출 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브랜드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서동T' 앱은 별도로 승객이 지불할 호출료나 기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서동콜에 직접 전화를 하지 않아도 택시를

호출하여 탑승할 수 있으며 이는 출퇴근시간이나 우천 시 콜이 폭주해 콜센터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대기업 호출앱과 달리 목적지를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거리 콜을 거부하는 승차 거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익산 개인택시단위조합에서는 "대기업이 택시 호출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동콜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승객과 기사들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서동T 앱을 출시했다"며 "지역 브랜드 택시로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서해안 최초 가리비 시험양식 성공

어업인 새 소득창출 기회 제공

군산시가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하며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의 희망을 주고 있다.

시는 지역 주양식종인 해조류(김) 양식산업에 대체할 신품종(패류) 양식 어장 개발하고자 지난 6월에 가리비 치패 2mm 30만마리를 바다에 입식해 6개월만에 7~8cm 성장,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은 시해역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패류양식 어장 개발을 위해 2020년~2023년(3년간) 시비 3억원을 반영, 시 관내 해역에 신품종 양식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지난 6월에 가리비 치패 2mm 30만마리를 바다에 입식해 6개월만에 7~8cm 성장, 서해안 최초로 가리비 시험양식에 성공했다

mm 이상이면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체장이다. 가리비 치패 1미당 가격은 5원인데 성장한 가리비 위판을 하면 1미당 280원으로 58배의 수익가치가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리비 먹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채중에 부착한 오순생물(따개비, 바다벌레류 등) 제거하면 해수유동을 통해 먹이 공급원이 해결되며,

양식 기간은 5~6개월 관리로 생산이 가능해 단기간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내년 2차년도에는 비안도 해역 외에 다른 해역에서의 시험양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양식종으로 해조류(김) 양식 뿐만 아니라 가리비 양식을 군산시의 '신품종 양식 메카'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지정정비센터 군산정비, 착한가게 동창

군산시 개정동은 르노삼성자동차 지정정비센터 군산정비(대표 정완용)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관을 전담했다고 9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달 3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된다.

정완용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결심해주신 르노삼성자동차 지정정비센터 군산정비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게에 동참하는 신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지역사회의 나눔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원광대병원 원 갤러리 병원전경 발전사 전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외래동 1층에 자리한 원 갤러리에서 '허제와 오늘의 희망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원광대학교병원의 시대별 대표적인 병원 전경 모습을 대표명해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억 속 어제의 원광대병원 전경들을 추억하고 병원 태동에서 현재까지 발전해 온 전경 사진을 수채화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 전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자신과 이웃간 나누었던 느낌과 감정의 시간들이 사라져 가는 듯 한 요즘을 병원 발전 전경을 테마로 한 수채화 전시회는 미래를 향한 또 다른 화두를 제시해 주는 것 같다.

김중운 원광대병원 행정직장은 "병원 태동기에서 현재까지의 병원 전경이 주제가 된 이 수채화 전시회는 우리의 지난날을 뒤돌아보게 하고 화폭에 담겨 있는 병원 발전상을 통하여 과거 속에 미래를 위한 우리의 희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선언적 문화운동 릴레이 군산시 민간단체들 동참


민간단체들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선언적 문화운동' 릴레이에 동참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단체들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언적 문화운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선언적 문화운동이란 민간사 회단체의 연달연시 각종 행사를 취소해 코로나19 감염 지역 확산 방지에 동참한다는 문화 운동이다.

이번 민간사 회단체들의 문화 운동은 최근 우리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장, 음식점, 학교뿐 만 아니라 각종 개인 모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